

[에버렛 스완슨이 현지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현지 선교사를 후원해 주시는 소중한 후원자님께,

저희는 이제 일부 한국 현지 선교사들의 정보와 사진을 받아 이 편지에 동봉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벌써 사역을 시작했고, 일부는 머지않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몇몇은 젊고, 몇몇은 나이가 좀 더 들었습니다. 몇몇은 남자이고 몇몇은 여자입니다. 모두가 깊이 헌신했고 주님을 향해 열정적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민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몇은 그들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및 현재의 사역 등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지 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항공우편을 이용하십시오. 후원자님께서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주시고, 후원자님과 동시에 기도 동역자로서 후원자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후원자님의 자연스러운 일상 사진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미국의 호화로우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영적인 것에 중점을 두십시오. 답장이 오는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은 아주 적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선박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보다 적게 걸리지만 길게는 6 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후원하는 선교사의 개인 정보에서 보이는 어떤 주소든 모두 무시하십시오. 아래 안내해 드리는 주소만 사용하십시오:

- 대한민국 대구 남산동 5, 1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선교사의 이름과 번호를 아주 명확하게 위 주소에 인쇄해 주십시오. 또한 후원자님의 회신 주소도 인쇄해 주십시오. 후원자님께서 선교사에게 직접 소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보내실 현금 선물금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을 통해 보내 주십시오.

¹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in Korea): 1950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입국한 로버트 라이스(Robert Franklin Rice, 한국명: 나익수, 1921~) 목사가 대구시 남일동 33번지에 설립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래의 구전적 전도 방법을 지양하고 좀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연구 실천하기 위하여 문서 선교를 주요 사업으로 한 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초기에는 '대한 부흥관'이라고 불렀다(https://www.kich.org/bbs/view.html?idno=3375&sc_category=).

정기적으로 발송할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첫 번째 달 사역을 마치고 나서 번역을 위해 대구로 보냈고, 그 후에 발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문서 작업, 편지 관련 업무, 번역, 우편료 등 모든 일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후원자님의 10 달러는 전부 현지 선교사에게 보내집니다!

저희는 이 후원금을 한 달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3 월 후원금은 2 월 1 일에 한국으로 송금됩니다.)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벌써 몇몇 현지 선교사들에게 2~3 개월 치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와 동역하는 후원자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루어질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20 명이 아니라 80 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후원자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진실하게,

에버렛 스완슨 올림